

# PSG 이강인, 데뷔전 평점 7.4... “메시의 공간을 즐겨”

이강인, 개막전 로리앙 상대로 선발 82분 활약  
세트피스 전담 키키 ‘존재감’ 과시...0-0 무승부

프랑스 프로축구 명문 파리 생제르맹(PSG)에 입단한 이강인이 공식 데뷔전에서 합격점을 받았다. 이강인은 13일 오전 4시(한국시간) 프랑스 파리의 파르크 데 프랑스에서 열린 로리앙과의 2023~2024시즌 프랑스 프로축구 리그1 개막전에서 선발로 출전해 후반 37분까지 82분을 뛰었다. 곤살루 하무스, 아센시오와 함께 공격 삼각편대로 나선 이강인은 활발하게 움직이며 장기간 탈압박과 정확한 패스를 선보였다. 세트피스 전담 키키로도 존재감을 뽐냈다. 유럽 통계사이트 ‘소파스코어’는 이강인에게 평점 7.4를 부여했다. ‘소파스코어’ 기록 통계에 따르면, 이강인은 볼 터치 85회를 기록했고, 드리블을 4차례 시도해 3회 성공했다. 패스 성공률은 88%였다.

또 크로스를 12번 시도해 기회를 노렸다. 또 다른 통계업체 ‘후스코어드닷컴’은 이강인에게 평점 6.9를 줬다. 공격 삼각편대 중 가장 높은 평점이었다. PSG 공격의 핵심 킬리안 음바페(프랑스)와 네이마르(브라질)가 이적 이슈로 결장한 가운데 이강인의 데뷔전은 성공적이었다. 리그1 사무국도 이강인을 주목할 ‘더 플레이어’로 정하며 “이강인과 아센시오가 PSG에 가져온 열정은 칭찬받을 자격이 있다. 메시가 떠나면서 큰 공백이 생겼지만 이강인은 메시라는 위대한 선수의 공간에서 뛰는 걸 즐겼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PSG는 압도적인 내용에도 불구하고 골 결정력 부재를 드러내며 로리앙과 0-0으로 비겼다. 로리앙의 밀집수비가 통한 셈이다. PSG는 오는 20일 툴루즈와 2라운드를 갖는다.



이강인이 13일 오전 4시(한국시간) 프랑스 파리의 파르크 데 프랑스에서 열린 로리앙과의 2023~2024 시즌 프랑스 프로축구 리그1 개막전에서 선발로 출전해 후반 37분까지 82분을 뛰었다.

호날두, 사우디서도 우승컵  
아랍클럽챔피언스컵 정상

유럽 축구 무대에서 수차례 정상에 올랐던 크리스티아누 호날두(알나스르)가 중동에서도 우승컵을 들어올렸다. 호날두 소속팀 알나스르는 13일(한국시간) 사우디 타이프에 있는 킹 파흐드 경기장에서 열린 2023 아랍클럽챔피언스컵 결승전 알힐랄(사우디)전에서 2-1 역전승을 거두고 정상에 올랐다. 알나스르가 이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호날두를 비롯해 사디오 마네, 브로조비치, 오스피나 등 유럽 축구 스타 플레이어들을 잇달아 영입한 알나스르는 아랍클럽챔피언스컵 역대 첫 우승을 일구는데 성공했다. 호날두는 이날 팀 득점을 모두 책임지며 승리에 일등 공신이 됐다. 호날두는 0-1로 뒤진 후반 29분 문전에서 동료 스타 알간남의 크로스를 다이렉트 슈팅으로 연결하며 동점골을 넣었다. 전후반이 1-1로 끝나 시작된 연장전에서 호날두는 전반 8분 역전 결승골을 터뜨렸다. 세코 포파나가 때린 슈팅이 크로스바를 맞고 튀어나오자 호날두는 헤더로 연결해 골망을 흔들었다. 올해 1월 유럽을 떠나 알나스르로 이적한 호날두는 첫 우승을 차지했다. 그럼에도 알나스르는 2022~2023시즌 사우디프로리그에서는 알이티하드에 밀려 리그 2위에 그쳤다. 호날두는 이번 대회에서 우승을 이끌고 6골로 대회 득점왕에도 올랐다. 아랍클럽챔피언스컵은 각국 정규 시즌 개막 전 중동과 아프리카 지역 프로축구팀들이 참가하는 대회다. 올해 대회에는 이 지역 37개 구단이 출전했다.

다. 뉴시스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의 김하성이 11일(현지시간) 미 애리조나주 피닉스의 체이스필드에서 열린 2023 메이저리그 애리조나 다이아몬드백스와 경기 1회 선두 타자로 나와 삼진당하고 있다.



김하성, 16경기 연속 안타  
마감...韓 최다 신기록 불발

김하성(28·샌디에이고 파드리스)이 한국인 메이저리거 최다 연속 경기 안타 기록을 새로 쓰는 데 실패했다. 김하성은 13일(한국시간) 미국 애리조나주 피닉스의 체이스필드에서 벌어진 2023 메이저리그(MLB) 애리조나 다이아몬드백스와의 경기에서 1번 타자 2루수로 선발 출전해 4타수 무안타로 침묵했다. 이로써 김하성은 7월 25일 피츠버그 파이리츠전부터 전날 애리조나전까지 이어온 16경기 연속 안타 행진을 마감했다. 추신수(현 SSG 랜더스)가 신시내티 레즈에서 뛰던 2013년 7월 3일부터 7월 23일까지 작성한 한국인 메이저리거 최다 연속 경기 안타 기록에 어깨를 나란히 했지만, 이를 넘어서지는 못했다. 김하성은 1회초 첫 타석에서 상대 우완 선발 잭 갤런을 상대로 투링 삼진을 당했다. 풀카운트에서 갤런이 목쪽 직구를 던졌는데, 심판이 스트라이크를 선언했다. 김하성은 허리를 숙이며 아쉬운 표정을 지었다. 3회초 1사 주자 없는 상황에서 두 번째 타석을 맞은 김하성은 우익수 뜬공으로 물러났다. 김하성은 5회초 2사 후에는 3루 땅볼을 쳤다. 갤런의 너클커브를 노려쳤는데 상대 3루 루비우 케네디가 빠른 타구를 넘어지면서 잡아냈다. 8회초 1사 후 상대 우완 불펜 투수 케빈 진켈을 상대한 김하성은 9구까지 가는 승부를 벌였지만, 또다시 3루 땅볼로 돌아섰다. 샌디에이고는 타선이 산발 5안타를 치는데 그치면서 0-3으로 졌다. 애리조나는 갤런의 60닝 4피안타 8탈삼진 1볼넷 무실점 호투 속에 1회말 토미 팜의 적시 2루타로, 3회말 크리스티안 워커의 우월 투런포로 3점을 뽑아 승리를 가져갔다. 샌디에이고는 56승 61패로 내셔널리그 서부지구 4위에 머물렀다. 애리조나(58승 59패)는 지금껏 9연패의 사슬을 끊었다.

## LG 빼고 다 바꿨다...프로야구, 역대급 외인 전성 10개 구단 중 9개 구단이 시즌 외국인 선수 교체

올 시즌 1회 이상 외국인 선수 교체 카드를 사용한 팀은 LG 트윈스를 제외한 9개 구단이다. 모두 13명의 외인이 팀을 떠나게 됐다. 이는 외국인 선수를 3명까지 보유할 수 있게 된 2014년 이후 최대 기록이다. 지난해는 8개 팀이 최소 한 명의 외국인 선수를 바꾸면서 12명이 시즌 중 교체됐다. 일찍부터 찾아온 부상 악재가 빠른 결단을 불러왔다. 올 시즌 10개 구단 중 가장 먼저 외국인 선수 교체에 나선 한화 이글스는 지난 4월 19일 여계 통증으로 이탈한 투수 버치 스미스를 퇴출했다. 스미스는 키움 히어로즈와 시즌 개막전에서 2%이닝 동안 60구만 뿌린 뒤 다시는 KBO리그 마운드에 서지 못했다. SSG 랜더스는 KBO리그 데뷔전도 치르지 못한 애니 로메로와 지난 5월 4일 결별했다. 로메로는 스프링캠프 때 발생한 어깨 통증으로 재활만 하다 팀을 떠났다. 어느 때보다 치열한 순위싸움도 외국인 선수 교체 러시에 불을 붙였다. 경쟁팀과 격차가 크지 않은 상황에서 외국인 선수를 바꿔 전력을 끌어 올릴 수 있다면 투자해볼 가치가 있기 때문이다. 2017년 이후 6년 만의 가을야구를 노리는 롯데 자이언츠는 지난달 타자 잭 렉스, 투수 댄 스트레일리르 모두 내보내고 새 얼굴 니코 구드럼과 애런 윌커슨을 영입해 전열을 재정비했다. KIA 타이거즈도 전반기 막판 손 앤더슨, 아도니스 메디나를 방출하고 토마스 파노니, 마리오 산체스를 데려와 원투펀치를 재구성했다. 이들 모두 중위권 싸움이 한창인 팀들이다.



시즌 프로야구 외국인 선수 교체가 줄을 잇고 있다. 각 구단들이 연이어 떠온 승부수에 뜨겁게 펼쳐진 순위경쟁은 더 치열하게 불붙었다.

## 임종훈-신유빈 조, 혼합 복식 9개월 만에 정상

지난해 노바고리차 대회 후 9개월 만에  
韓, 남녀 복식 결승 4팀 진출 우승 확보

임종훈(한국거래소)-신유빈(대한항공) 조가 브라질에서 열리고 있는 국제 대회에서 혼합복식 우승을 차지했다. 임종훈-신유빈 조는 13일(한국시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린 월드테이블테니스(WTT) 컨텐더 리우데자네이루 2023 국제탁구대회 혼합복식 결승에서 스웨덴의 알바로 로블레스-마리아 시아아 조를 3-1(11-9 12-10 8-11 11-4)로 꺾었다. 혼합복식 세계 4위인 임종훈-신유빈 조는 이번 대회 1번 시드로 출전해 8강전 오비디우 이오네스쿠-베르나데트 쇠츠(루마니아), 4강전 장우진-전지희(한국) 등을 차례로 꺾고 우승했다. 아시안게임과 올림픽에서 메달을 노리는 임종훈-신유빈 조는 지난해 11월 노바고리차 대회에서 WTT 컨텐더 혼합복식 첫 우승을 달성했지만 이후 우승이 없었다. 임종훈-신유빈 조는 다음달 아시아선수권과 아시안게임, 내년 올림픽을 앞두고 자신감을 충전했다. 임종훈과 신유빈은 남녀 복식에서도 우승을 노리고 있다. 남자 복식 4강전에서 임종훈-안재현 조(한국거래소)가 아르헨티나의 알토 가스통-호라치오 치푸엔테스 조를 3-1(11-5 8-11 11-6 11-9)로 꺾고 결승 진출을 확정했다. 한국 선수들끼리 싸운 4강전에서 이상수-조대성 조(삼성생명)가 조승민(삼성생명)-오준성(미래에셋증권) 조를 3-0(11-9 11-7 11-6)으로 꺾었다. 한국 선수들끼리 결승전을 치른다. 여자 복식에서는 직전 컨텐더 리마 대회 결승 상대들이 다시 만났다. 신유빈(대한항공)



공)-전지희(미래에셋증권) 조가 루마니아의 엘리자베타 사마라-베르나데트 쇠츠 조를 3-0(14-12 11-8 11-6)으로, 최효주(한국마사회)-김나영(포스코인터내셔널) 조가 스웨덴의 크리스티나 칼베르그-린다 베리스트렘 조를 역시 3-0(11-4 13-11 11-6)으로 완파하고 결승에 올랐다. 두 조는 지난주 리마 컨텐더 여자 복식 결승에서도 대결했다. 당시는 치열한 접전 끝에 신유빈-전지희 조가 3-2(11-9 9-11 8-11 13-11 12-10)로 이겼다. 반면 단식에서 한국 선수들이 받아 든 성적표는 아쉬웠다. 남자는 4강, 여자는 8강에 머물렀다. 남자 단식 4강전에서 장우진이 마티아스 팔크(스웨덴)에게 0-3(9-11 9-11 10-12)으로 졌고 조승민은 일본의 신성 마츠시마 소라에게 2-3(17-19 11-7 6-11 11-8 11-13)으로 석패했다. 여자 단식은 8강전에서 이은혜(대한항공)가 부르나 타카하시(브라질)에게 1-3(6-11 11-9 8-11 6-11)으로, 김나영이 린다 베리스트렘(스웨덴)에게 0-3(5-11 9-11 2-11)으로 졌다. 브라질 리우에서 지난 7일부터 열리고 있는 이번 대회는 국제탁구연맹(ITTF) 국제대회 전담기구 WTT가 주관하는 프로투어 대회다. WTT 컨텐더급은 WTT 챔피언스나 WTT 스타 컨텐더 대회보다는 격이 낮은 대회다.



이도현이 12일(현지시간) 스위스 베른의 포스트파인스 아레나에서 열린 2023 국제스포츠클라이밍연맹(IFSC) 클라이밍 세계선수권대회 남자부 콤바인 결승 경기를 펼치고 있다. 이도현은 총점 127.1점으로 7위를 기록했다.

## 이도현, IFSC 세계선수권 콤바인 7위...파리 직행 실패

11월 올림픽 티켓 재도전  
한국 남자 스포츠클라이밍의 이도현(블랙야크)이 국제스포츠클라이밍연맹(IFSC) 세계선수권대회 남자부 콤바인(볼더링+리드) 결승에서 7위에 그치며 내년 파리올림픽 직행 티켓을 따지 못했다. 이도현은 13일(한국시간) 스위스 베른에서 열린 2023 IFSC 세계선수권대회 남자부 콤바인 결승에서 127.1점(볼더링 70점+리드 57.1점)을 기록, 7위를 차지했다. 이 대회 콤바인 종목 1~3위는 2024 파리올림픽 스포츠클라이밍 출전권이 주어진다. 7위로 파리올림픽 티켓을 놓친 이도현은 오

는 11월9~12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리는 올림픽 아시아 예선에 출전해 재도전에 나선다. 이도현은 지난 5일 이 대회 볼더링 결승에서 3위로 세계선수권대회 첫 메달을 획득하며 콤바인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리드에서 57.1점으로 공동 5위에 오르며 선전한 이도현은 주 종목인 볼더링에 70점에 그치며 입상하지 못했다. 함께 출전한 송윤찬(도래울고)은 준결승에서 91.2점으로 결승에 오르지 못하고, 종합 19위로 대회를 마쳤다. 천종원(노스페이스 클라이밍팀)은 최종 34위에 그쳤다.